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이 은 혜** · 고 윤 주 · 오 원 정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 동성 친구와의 만족스런 관계를 예언하는 변인들을 조사하고, 발달적 차이와 성차를 밝혀보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N=142), 고등학생(N=124), 대학생(N=148)으로서 총 414명이었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와 함께 친구의 다양한 지원 및 갈등해결 방식을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모든 연령에서 친구에 대한 믿음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친구로부터 얻는 지원과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만족감의 예언 변인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 초기에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함께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갈등해결이, 중기에는 정서적 지원과 상대방을 배려한 갈등해결이, 그리고 후기에는 도구적인 지원과 공평한 갈등해결이 각각 친구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예언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친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개인이 맺게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데, 청소년기에 중요한 관계로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들 수 있다. 가족관계

는 전 생애 동안 개인의 사회관계망 안에서 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고윤주, 1997), 친구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Furman, 1989) 청소년기에는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다.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 대우받게 되어, 같은 문제를 가진 또래 친구

* 본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지원(KRF-2000-042-C00192)에 의한 연구의 일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해준 학생들과 자료수집을 도와준 강성화 교장선생님, 조성연 교수, 그리고 박주희, 김유선에게 감사한다.

** uhrhee@yonsei.ac.kr

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친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도 갖추게 된다(Berndt, 1982).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가지만,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관계를 더 적응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발달 분야에서 또래관계(Hartup, 1977) 또는 친구관계(Sullivan, 1953)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인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능력의 발달, 또는 특정 사회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환경인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고 또 종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구자들(예, Bigelow, Tesson, & Lewko, 1996)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의 발달 분야에서는 이원적인(dyadic) 친구관계보다는 또래집단에서의 적응(예,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도현심, 1992; 이춘재, 박금주, 2000)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성 친구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최인수, 원운선, 2000)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혈연 및 법으로 정의되는 가족관계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자발적인 친구관계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관계들은 사회적 규범과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조절되는 닫힌 영역(closed-field)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를 맺거나 종결하는 것이 자유로운 친구관계는 열린 영역(open-field)으로 정의된다(Collins & Laursen, 1992). 이는 자발적인 성격의 친구관계가 가족관계에 비해 쉽게 맺어지고 또한 종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제의 하나이다.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반면, 이러한 지원이 결핍되면 외로움, 지루함, 낮은 자존감, 불

안감 또는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Carbery & Buhrmester, 1998; Weiss, 1974).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었던 아동기가 지나면서, 부모와 함께 동성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초기(Park, 1996)부터 후기(Samter, Whaley, Mortenson, & Burleson, 1997)까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

친구관계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욕구는 다양하다. 아동기부터 성인기 초기에 이르는 다양한 친구관계 연구들을 문헌 조사한 Aboud와 Mendelson (1992)은 동성친구의 중요한 기능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교제의 즐거움'으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눌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의 제공 기능이다. 둘째는 '도움'으로 목적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도와주는 기능이다. 셋째는 '친밀감'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기능이다. 넷째는 관계에 대한 '신뢰'로 친구와의 안정된 관계를 포함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기능이다. 다섯째는 '인정'으로 칭찬과 존중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주는 기능이다. 여섯째는 '정서적 안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위로 등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은 사회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의 제공을 뜻하며,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delson & Aboud, 1999; Mendelson & Kay, in press).

개인의 행복 또는 만족감은 일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차원의 개념, 즉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Bradburn, 1969; Diener and Emmons, 1985). 따라서 친구에 대한 만족감도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부정적 감정은 관계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으로 친구와의 갈등에 관련된 감정(예,

싸우고 싶은 느낌), 상대적인 무능함과 관련된 감정(예, 열등감, 질투심) 그리고 관계의 소원함과 관련된 감정(예, 멀어진 느낌, 불확실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Mendelson, 1995; Plutchik, 1980).

한편, 만족감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어 접근한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친구의 기능과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La Gaipa(1990)의 변증법적 이론에 따르면,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부정적 감정이 증가할 수 있지만, 지원을 잘 해주는 관계에서도 통제를 당하는 느낌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예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비자발적인 관계에서 자주 발견되며, 친구관계와 같은 자발적인 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은 긍정적 감정과는 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는 부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아동기(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이은혜, 고윤주, 1999b)와 청소년기(Mendelson & Aboud, 1999; Park, 1996)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친구들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또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등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아동기의 결과이며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의 지원 기능이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친구에 대한 개념 또는 기대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발달적 차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Bigelow와 La Gaipa(197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신뢰와 친밀감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Reisman과 Shorr(1978)의 연구를 참고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많이 기대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에만 기초하면,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에게서 친구에 대한 신뢰와 친구와의 친밀

한 관계 유지가 가장 높아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연령에 따른 기술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친구의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대립과 같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또한 중요하다(Argyle & Henderson, 1984; Canary, Cupach, & Messman, 1995). 관계의 질에서 갈등의 양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관계의 만족도와 더 관련성이 있었다(Collins & Laursen, 1992).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현장이나 조직사회 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고, 친밀한 관계 특히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갈등 해결방식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Canary et al, 1995).

De Vliert(1997)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갈등해결 방식을 분류하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관심 또는 자신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또는 상대방의 목적이다. 두 가지 축을 기초로 가장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는 Rahim과 동료(Rahim, 1983; Rahim & Magner, 1995)의 갈등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식은 '협력'으로서 양자의 관심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양보'이며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지배'이며 자신의 관심사가 우선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시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회피'이며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절충'으로 서로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얻을 것은 얻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공적인 사회관계에는 적용이 잘 되었으나, 가족이나 친구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협력'과 '절충'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미국(Hammock, & 1990)과 한국(Koh, Mendelson, & Rhee,

in press)의 연구대상에서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과 '절충'을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서 네 가지 갈등 해결 방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의 특징은 상호 평등함에 있다 (Piaget, 1965; Youniss, 1980). 따라서 협력이나 절충과 같이 서로 공평하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상당히 성숙한 수준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추론을 요구한다. 실제로 가족을 포함한 사회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협력이나 절충보다는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거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Collins & Laursen, 1992). 따라서 협력이나 절충과 같은 성숙한 방식은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만족스러운 친구관계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부터 후기까지 만족스러운 친구관계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친구관계에서, 친구의 어떠한 지원 기능이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갈등해결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해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는, 첫째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친구의 지원 기능, 갈등해결 방식은 연령집단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 기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셋째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친구와의 갈등 해결 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지원 기능과 갈등해결 방식을 함께 고려할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능한 가설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친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셋째, 친구의 다양한 지원 기능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는 정적인 관계,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친구와의 공평한 갈등 해결 방식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의 2학년 142명(남 73명, 여 69명)과 고등학교의 2학년 124명(남 57명, 여 67명), 그리고 충남 천안에 위치한 H대 학생 148명(남 71명, 여 77명)으로 총 414명이었다. 대학생은 학년과 전공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대단위 교양 강의에서 표집되었다.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소수의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중학생의 경우 평균 13.8세, 고등학생은 16.8세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성차가 있어서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2.5세이며, 여학생은 20.5세였다. 대학교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있어서 평균 연령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 형식으로 다음의 네

가지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 친구 한 명을 기록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음의 변인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친구에 대한 애정(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Respondent's Affection)편에서 애정을 측정하는 문항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문항 각각 4 개 문항씩 8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0부터 5까지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졌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이은혜, 고윤주, 1999a), 본 연구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Mendelson(1995)이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부정적 감정(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Negative Feelings)편에서 14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Plutchik(1980)의 정서 용어표를 기초로 제작되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갈등, 상대적 무능감, 관계의 소원함)을 0부터 8까지의 9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이은혜, 고윤주, 1999a), 본 연구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셋째, 친구의 기능은 Mendelson과 Aboud(1999)의 McGill 친구 관계 질문지-친구의 기능(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Friend's Functions)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여섯 가지 친구의 지원 기능에 대해 각각 5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0부터 8까지의 9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졌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이은혜, 고윤주, 1999a), 본 연구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여섯 가지 기능의 Cronbach's α 는 각 기능별로 .76에서 .85까지로 나타났다.

넷째, 갈등해결방식은 Mendelson, Goldbaum, 그리고 Semeniuk(1995)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

지-갈등해결 방식(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Conflict Resolution Style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evinger와 Pietromonaco(1989)가 Rahim(1983)의 모델을 기초로 부부의 갈등 관계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친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 가지 방식('회피', '지배', '양보', '협력과 절충')에 대해서 각 4 문항씩 16 문항이고 0부터 4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4 가지 방식의 Cronbach's α 는 .70에서 .77로 나타났다.

이상의 도구들은 본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말로 번역되었고, 다시 심리학을 전공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교포 대학생에 의해서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들은 원 제작자와 본 연구자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수정되었다. 원 도구의 문항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캐나다 학생들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양국 모두에서 요인분석에 기초한 구인타당도가 입증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선정되었다.

3.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질문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시간에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검사자들은 사전훈련을 받은 대학원생들이었다. 대학생은 대단위 교양 강의 시간에 교수의 허락을 받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응답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업 시간 동안에 응답을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이었다.

결과의 분석에서, 친구에 대한 감정 점수와 친구의 지원 기능 점수 그리고 갈등해결방식 점수는 각 하위 척도에 속한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8.0을 사용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단순상관계수를 산출

표 1. 친구에 대한 감정, 친구의 기능, 갈등해결 방식의 평균(SD) 및 성과 학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남 평균(SD)	녀 평균(SD)	F	중학생 평균(SD)	고등학생 평균(SD)	대학생 평균(SD)	F
친구에 대한 감정							
긍정적 감정	3.93(.98)	3.88(.97)	.33	3.66(1.13) ^a	3.91(.97) ^a	4.13(.74) ^b	8.83 ^{***}
부정적 감정	1.08(.97)	1.24(.99)	2.85	1.17(1.11)	1.26(.90)	1.08(.91)	1.13
친구의 기능							
교제의 즐거움	5.78(1.85)	5.96(1.83)	1.00	5.64(2.21) ^a	5.72(1.88) ^{ab}	6.20(1.31) ^b	3.98 [*]
도움	5.37(2.03)	5.73(1.79)	3.67	4.91(2.26) ^a	5.42(1.91) ^a	6.26(1.22) ^b	19.78 ^{***}
친밀감	5.66(2.11)	6.19(1.92)	7.11 ^{**}	5.11(2.36) ^a	5.97(2.09) ^b	6.66(1.19) ^c	23.35 ^{***}
신뢰	6.51(1.81)	6.62(1.86)	.39	5.87(2.25) ^a	6.72(1.75) ^b	7.10(1.10) ^b	18.51 ^{***}
인정	4.76(2.03)	5.34(1.86)	9.17 ^{**}	4.31(2.27) ^a	4.83(1.88) ^a	5.94(1.25) ^b	29.56 ^{***}
정서적 안정	5.22(2.12)	6.08(1.83)	19.59 ^{***}	4.94(2.39) ^a	5.51(2.00) ^b	6.47(1.21) ^c	23.81 ^{***}
갈등해결방식							
양보	1.92(.90)	1.91(.90)	.00	1.82(.98)	1.94(.97)	1.98(.73)	1.25
지배	1.99(.85)	1.79(.85)	5.62 [*]	1.84(.83)	1.85(.89)	1.95(.84)	.81
회피	1.97(.87)	2.05(.81)	.86	2.12(.90)	1.99(.81)	1.93(.79)	2.02
협력 및 절충	2.47(.92)	2.61(.82)	2.81	2.39(1.02) ^a	2.45(.85) ^a	2.75(.69) ^b	6.89 ^{**}

* p<.05 ** p<.01 *** p<.001

하고 각각 3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이었고, 독립변인은 6가지 친구의 지원기능과 4가지 갈등해결방식이었다. 회귀분석 시 통제변인으로서는 성과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넣고, 1차 분석에서는 친구의 기능을, 2차 분석에서는 갈등해결방식을, 그리고 3차 분석에서는 1, 2차에서 유의한 변수를 동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 과

1. 친구에 대한 감정, 친구의 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의 성과와 연령차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친구

의 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이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성차를 보면, 친구의 지원 기능 중에서는 '친밀감'(F(1, 410)=7.11, p<.01), '인정'(F(1, 410)=9.17, p<.01), '정서적 안정'(F(1, 410)=19.59, p<.001)이, 그리고 갈등해결 방식에서는 '지배'(F(1, 410)= 5.62, p<.05)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의 평균을 참조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밀감 및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친구의 위로와 격려를 더 많이 보고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로부터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는 '지배'의 경향이 높았다.

연령집단간의 차이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 모두 그리고 갈등해결 방

식 중 '협력 및 절충'에서 유의하였다. Scheffé 검증 결과를 참고하면,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친구로부터 다양한 사회정서적 그리고 도구적 지원을 받는 정도가 증가했으며, 갈등을 공평하고 성숙하게 해결하려는 경향도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F(2, 411)=8.83, $p<.001$)도 증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밀감(F(2, 411)=23.35, $p<.001$), 신뢰(F(2, 411)=18.51, $p<.001$) 그리고 정서적 안정(F(2, 411)=23.81, $p<.001$)등의 정서적인 지원과 교제의 즐거움(F(2, 411)=3.98, $p<.05$)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연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정'(F(2, 411)=29.56,

$p<.001$)이나 '도움'(F(2, 411)=19.78, $p<.001$)등의 도구적 지원은 중, 고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대학생에게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협력과 절충(F(2, 411)=6.89, $p<.01$)과 같은 성숙한 갈등해결 방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생들은 이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협력 및 절충'을 제외한 다른 갈등해결 방식에서는 집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친구에 대한 감정과 친구의 지원 기능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간의 단순상관 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연령

표 2. 친구에 대한 감정과 다른 친구관계 변인들 사이의 단순 상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친구에 대한 감정						
긍정적 감정	1.00	-.32***	1.00	-.29**	1.00	-.38***
부정적 감정	-.32***	1.00	-.29**	1.00	-.38***	1.00
친구의 기능						
교제의 즐거움	.64***	-.32***	.53***	-.32***	.50***	-.28***
도움	.66***	-.35***	.60***	-.32***	.58***	-.31***
친밀감	.67***	-.35***	.52***	-.28**	.53***	-.27***
신뢰	.69***	-.37***	.64***	-.36***	.55***	-.42***
인정	.61***	-.22**	.50***	-.25**	.36***	-.16
정서적 안정	.68***	-.32***	.62***	-.23*	.54***	-.24**
갈등해결 방식						
양보	.17*	.18*	.41***	-.04	.12	.22**
지배	.32***	.11	.07	.06	.09	.13
회피	.13	.03	.14	-.03	-.03	.18*
협력 및 절충	.39***	-.17*	.37***	-.27**	.38***	-.15

* $p<.05$ ** $p<.01$ *** $p<.001$

집단에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감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모든 연령 집단에서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의 기능은 부정적 감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단, 대학생의 경우 '인정'은 제외됨). 즉 친구의 지원이 낮다고 느낄수록 친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예언

하는 친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사이의 부적 상관이 유의했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성과 부정적 감정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성과 긍정적 감정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이 예언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결과는 표 3과 표 4의 1차 회귀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표 3의 1차 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중학생의 경우는 '신뢰', '정서적 안정', '교제의 즐거움'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

표 3. 성과 부정적 감정을 통제한 후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

중		고		대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1차 회귀분석					
신뢰	.37***	신뢰	.33***	신뢰	.29***
정서적 안정	.31**	정서적 안정	.43***	도움	.40***
교제의 즐거움	.18*				
$R^2=.60$		$R^2=.50$		$R^2=.45$	
$F=40.92(df=5,134), p=0.00$		$F=29.31(df=4,119), p=0.00$		$F=29.00(df=4,143), P=0.00$	
2차 회귀분석					
협력 및 절충	.26**	양보	.40**	협력 및 절충	.33***
지배	.25**				
$R^2=.31$		$R^2=.24$		$R^2=.26$	
$F=14.79(df=4,135), p=0.00$		$F=12.89(df=3,120), p=0.00$		$F=6.48(df=3,144), p=0.00$	
3차 회귀분석					
신뢰	.37***	신뢰	.33***	신뢰	.29***
정서적 안정	.31**	정서적안정	.43***	도움	.40***
교제의 즐거움	.18*				
$R^2=.60$		$R^2=.50$		$R^2=.45$	
$F=40.92(df=5,134), p=0.00$		$F=29.31 (df=4, 119), p=0.00$		$F=29.00(df=4,143), p=0.00$	

* $p<.05$ ** $p<.01$ *** $p<.001$

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신뢰'와 '정서적 안정'이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 '신뢰'와 '도움'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즉, 친구에 대한 믿음은 청소년기 동안 계속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들에게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만족감의 예언에서 유의했다. 친구의 부정적 감정에 관한 회귀분석은 표 4의 1차 분석을 참고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친구의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신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친구에 대한 믿음이 적을수록 불만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과를 종합하면, 친구의 여섯 가지 지원 기능은 긍정적 감정과는 정적 상관, 부정적 감정과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는 중, 고,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즉, 친구와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고, 친구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된다고 하겠다.

3. 친구에 대한 감정과 갈등해결 방식

친구에 대한 감정과 갈등해결 방식 사이의 단순 상관을 표 2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은 중학생의 경우 '양보', '지배', '협력 및 절충'과, 고등학생의 경우 '양보', '협력 및 절충'과, 대학생의 경우 '협력 및 절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협력 및 절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고 공평하게 해결할수록 친

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네 번째 가설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나타난 '양보'와 긍정적 감정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은 친구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며 양보하는 정도와 만족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의 경우, '지배'도 긍정적 감정과의 상관이 유의했는데,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친구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 고생에게는 공평한 갈등해결만이 친구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어떠한 갈등해결방식이 친구에 대한 감정을 예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에 대한 감정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3과 표 4의 2차 분석에 제시되어 있다. 앞의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단계에서는 성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갈등해결 방식이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표 3의 2차 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생에서는 '협력 및 절충'과 '지배'가, 고등학생에서는 '양보'가 그리고 대학생에서는 '협력 및 절충'이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즉, 중학생은 공평하거나 또는 상대 욕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고등학생은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상대방을 배려해주었을 때, 그리고 대학생은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했을 때 긍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갈등해결방식의 관계를 표 4의 2차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지배'가, 고등학생의 경우 '협력 및 절충'이,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양보'가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배'가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도 예언하고 있었는데, 부정적 감정과 '지배'의 단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표 2 참조)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가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첫째, '지배'가 부

정적 감정의 유의한 예언 변인이 된 이유로서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 상관과 달리 먼저 회귀 공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변량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배'와 부정적 감정의 단순상관은 .11(N.S.)이지만, 성과 긍정적 감정을 통제한 후 두 변인의 부분 상관은 .26($p < .00$)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량 통제에 따른 수치의 변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 집단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중앙치에 의해 상, 하로 구분하고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지배'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네 집단의 '지배' 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 138) = 3.41, p = .02$),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모두 높은 집단의 '지배' 점수가 가장 높고, 두 가지 감정이 모두 낮은 집단의 '지배' 점수는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갈등해결 방식으로 '지배'를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만족감도 높았지만 불

만도 역시 높았다. 갈등해결에서 '지배'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미성숙한 갈등해결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도 있겠지만 동시에 불편한 느낌 또한 생길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 못 하더라도 친구를 배려할 때, 즉 양보할 때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으나,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도 있어서, 중학생보다 다소 이타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수록 친구에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 못하고 친구만을 배려할 때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 관계의 상호성과 평등함이 보다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초기에는 자기중심적인 갈등해결 방식이, 중기에는 다소 이타적이거나 공평한 방식이 그리고 후기에는 공평하고 상호

표 4. 성과 긍정적 감정을 통제한 후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

중		고		대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1차 회귀분석					
신뢰	-.27*	신뢰	-.30**	신뢰	-.31**
$R^2 = .17$		$R^2 = .14$		$R^2 = .22$	
$F = 9.02(df = 3, 136), p = 0.00$		$F = 6.36(df = 3, 120), p = 0.00$		$F = 13.49(df = 3, 144), p = 0.00$	
2차 회귀분석					
지배	.26**	협력및절충	-.19*	양보	.25**
$R^2 = .19$		$R^2 = .12$		$R^2 = .22$	
$F = 10.66(df = 3, 136), p = 0.00$		$F = 5.25(df = 3, 120), p = 0.02$		$F = 13.15(df = 3, 144), p = 0.00$	
3차 회귀분석					
신뢰	-.33**	신뢰	-.30**	신뢰	-.28**
지배	.30***			양보	.23**
$R^2 = .22$		$R^2 = .14$		$R^2 = .27$	
$F = 10.94(df = 4, 135), p = 0.00$		$F = 6.36(df = 3, 120), p = 0.00$		$F = 13.24(df = 4, 143), p = 0.00$	

* $p < .05$ ** $p < .01$ *** $p < .001$

적인 방식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친구와의 공평한 갈등해결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을 것이라는 네 번째 가설은 단순상관만을 고려하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과 친구에 대한 감정을 통제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 지지되었다.

4. 친구에 대한 감정과 친구의 기능 및 갈등해결방식

친구에 대한 감정을 예언할 때 친구의 지원과 갈등해결 방식 중 어떤 변인이 더 중요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 3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첫 단계에 성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 단계에 친구의 기능과 갈등해결 방식 중에서 유의했던 예언변인들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표 3의 3차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적 감정의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친구의 기능 중 '신뢰'가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중학생은 '정서적 안정'과 '교제의 즐거움'이, 고등학생은 '정서적 안정'이, 그리고 대학생은 '도움'이 유의한 예언 변인으로 함께 나타났다. 이는 1차 회귀분석과 동일한 변인, 동일한 설명 변량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친구의 기능과 갈등해결 방식이 함께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갈등해결방식은 긍정적 감정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구와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든지, 친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면 긍정적 감정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 감정의 총 변량 중 60%를, 고등학생의 경우 긍정적 감정의 50%를, 대학생의 경우 긍정적 감정의 45%를 친구의 지원이 설명하였다.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들은 표 4의 3차 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경우 '신뢰'와 '지배'가, 고등학생의 경우 '신뢰'가, 대학생의 경우 '신뢰'와 '양보'가 유의한 예언변인

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갈등해결 방식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지만, 중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의 지원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방식도 부정적 감정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중, 고, 대학생 공통적으로 친구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친구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의 관심사가 무시되었다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의 22%를,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의 14%를, 대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의 27%를 친구의 지원과 갈등해결 방식이 설명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신뢰', '정서적 안정', '도움' 같은 친구의 지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낮은 '신뢰'와 함께 '지배' 또는 '양보' 같은 불공평한 갈등해결 방식에 의해 예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친구의 지원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을 설명할 수 있으나, 친구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은 지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갈등해결로 인해서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친구의 지원과 갈등해결 방식을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 연구와 이론을 기초로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친구로부

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는 정도와 친구와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 그리고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청소년기에 친구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친구와 어떠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Bigelow와 La Gaipa(1975) 그리고 Reisman과 Shorr(1978)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보면, 친구와의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다양한 사회정서적 그리고 도구적 지원을 얻는 정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 따라서 친구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다고 해도, 친구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익히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지원 제공 시기에서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적 현상으로 친구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기능이 실제로 청소년 초기보다 중기, 그리고 후기에 갈수록 높아지고 만족감도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다 분명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친구의 기능과 갈등해결방식에서 성차가 유의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갈등을 해결할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친구의 지원과 관련된 성차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이은혜, 고윤주, 1999; Mendelson & Aboud, 1999; Park, 1996)와 일관된 것이다. 갈등해결 방식의 성차에 대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배선영(1999)의 연구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정선영(진행중)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Craig, 1999),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기(Blyth, Hill, & Thiel, 1982)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남학생들은 성취 지향적으로 그리고 여학생들은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의 반영일 수 있다.

셋째, 친구의 여섯 가지 기능은 긍정적 감정과 정적 상관이, 부정적 감정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 고, 대학생 모두에게 친구에 대한 신뢰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었지만, 그 외에도 중학생에게는 사회정서적 지원이, 고등학생에게는 정서적 지원이, 대학생에게는 도구적 지원이 중요해지는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친구로부터 얻는 지원의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기 초기에는 격려나 위로 등의 정서적 지원이 유의했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지원도 중요했다. 청소년기 중기에는 사회적 욕구가 덜 중요해지고 정서적 욕구는 계속 유의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사회정서적인 욕구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도구적 욕구가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연령 변화와 무관한 변인도 있었는데, 친구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청소년기 동안 계속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친구에 대한 신뢰는 아동기에도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가장 관계가 높은 변인임이 밝혀진바 있다(이은혜, 고윤주, 1999b).

넷째, 갈등해결 방식에서도 발달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 즉 청소년 초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갈등해결 방식이, 중기에는 양보와 같이 이타적인 방식이 그리고 후기에는 협력 및 절충과 같은 공평한 갈등해결 방식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선행연구(Collins & Laursen, 1992)에서 지적되었듯이 청소년 초기에는 친구보다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려는 미성숙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불만도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사후 분석 결과를 보면, 갈등상황에서 '지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친구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모두 높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연구할 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친구관계의 특징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평한 갈등해결 방식이 중학생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또다른 유의한 변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초기에도 친구와의 호혜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Collins & Laursen, 1992)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해결방식에서 고등학생들은 자신보다는 친구의 욕구를 배려할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았고, 한편 공평하게 갈등의 해결이 안될수록 부정적 감정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친구에 대해 이타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친구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에게서는 공평하게 해결할 때 긍정적 감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양보와 같이 불공평하게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는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또는 사회적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동성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Furman, 1989).

공평하게 관계를 유지할 때, 상호의존도는 낮아지며 자율성은 증가하게 된다(Yum, 1987). 또한 관계가 상호의존적이고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수록 주고받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계산은 흐려지게 된다고 한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중, 고생의 경우에는 공평하지 못한 갈등해결 방식이 오히려 높은 만족감과 관련되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지원보다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원이 만족감을 예언하는데 중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후기에 가서는 서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또래 친구에 대한 절실함이 이전보다 약해지고, 친구관계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사회관계로 변화해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반 정도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동성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가 더 중요한 욕구충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Furman, 1989) 상대적으로 동성 친구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보다 명확한 증거로 지지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관계의 만족도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 정도는 -.29에서 -.38까지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두 가지 감정이 모두 낮거나 모두 높은 집단이 있었다. 한 예로, '지배'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던 중학생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과 불만의 정도가 모두 높은 친구관계의 특징은 추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의 종류가 달랐다. 긍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했지만,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데는 갈등해결 방식도 중요한 변수였다. 이는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독립적

인 구인(Bradburn, 1969; Diener and Emmons, 1985)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는 횡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발달적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다.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가능성 때문에 임의 표집 방법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므로 변인들간의 관계는 밝힐 수 있었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은 규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변수이면서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등한시 되어온 이원적인 친구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청소년 초기부터 후기까지 조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친구의 지원을 얻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은 청소년 초기부터 후기까지 서서히 성숙하며, 후기에는 친구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도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다. 발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에 대한 신뢰감은 청소년기 어느 단계에서나 모두 중요하나, 초기에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갈등 해결이, 중기에는 정서적 지원과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평한 갈등해결이, 그리고 후기에는 도구적인 지원과 공평한 갈등해결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윤주(1997).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이 지각한 자신의 사회관계망: 자녀와 부모 세대간에 나타난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16.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도현심 (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33-45.
- 배선영 (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고윤주 (1999a).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37(3), 201-220.
- 이은혜, 고윤주 (1999b).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정선영 (진행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수, 원운선 (2000). 한국 중·고·대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31-143.
- Aboud, F. E., & Mendelson, M. J. (1996). Determinants of friendship selection and qu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87-11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gyle, M., & Henderson, M. (1984). The rules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211-237.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 고윤주(1997).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이 지각한 자신의 사회관계망: 자녀와 부모 세대간에 나타난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igelow, B. J., & La Gaipa, J. J. (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Bigelow, B. J., Tesson, G., & Lewko, J. H. (1996). *Learning the rules: The anatomy of children's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 Blyth, D. A., Hill, J. P., & Thiel, K. S. (1982). Early adolescents' significant others: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familial and nonfamilial adults and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25-450.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41-62). New York: Springer.
- Canary, D. J., Cupach, W. R., & Messman, S. J. (1995).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Thousand Oaks, CA: Sage.
- Carbery, J., & Buhrmester, D. (1998). Friendship and need fulfillment during three phase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393-409.
- Collins, W. A., & Laursen, B. L. (1992). Conflict an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216-2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ig, G. C. (1999). *Human Develop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De Vliert, E. V. (1997). *Complex interpersonal conflict behaviour: Theoretical frontiers*.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Diener, E., & Emmons, R. A.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Furman, W. (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network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151-172).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 (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7-583.
- Hartup, W.W. (1977).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 in same- and mixed-aged situations. *Young Children*, 32, 4-13.
- Koh, Y.-J., Mendelson, M. J., & Rhee, U. (in press).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hip networks i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 La Gaipa, J. J. (1990). The negative effects of informal support systems. In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pp. 122-139). London: Sage.
- Levinger, G., & Pietromonaco, P. R. (1989). *Conflict styles inventor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endelson, M. J. (1995). *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Negative Feelings*.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k, J. (1995). *Handling Disagreements Questionnaire*.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Kay, A. C. (in press). Positive feelings in friendship: Does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matter?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ark, Y. J. K. (1996). *Das soziale Netzwerk in der fruehen Adoleszenz: Eine kulturvergleichende Untersuchung zweier Generationen aus Korea and Deutschla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et zu Koeln, Koeln.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him, M. A., & Magner, N. R.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22-132.
- Reisman, J. M., & Shorr, S. I. (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s among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Samter, W., Whaley, B. B., Mortenson, S. T., & Burleson, B. R. (1997). Ethnicity and emotional support in same-sex friendship: A comparison of Asian-Americans, African-Americans, and Euro-Americans. *Personal Relationships*, 4, 413-430.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Yum, J.-O. (1987). The practice of *Uye-Ri*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D. L. Kincaid (Ed.).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pp. 87-100). San Diego: Academic Press.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and Bacon.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o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iend's Support and Conflict-Resolution Styles as Predictors of Friendship Satisfaction in Adolescence.

Unhai Rhee · Yun-Joo Koh · Wonjung Oh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edictors of friendship satisfaction were examined in early-, mid-, and late-adolescence, along with developmental changes and sex differences in friendship characteristics. 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42 middle-school, 124 high-school, and 148 university students. Friendship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the best same-sex friend. In all age groups, 'trust'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for friendship satisfaction, and egalitarian conflict resolution increased across three age groups. Significant predictors of friendship satisfaction were different among three age group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ocio-emotional support and 'dominating' conflict resolu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emotional support and 'giving in' at conflict, and for university students instrumental support and egalitarian conflict resolution predicted friendship satisfaction. In terms of sex differences,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friendship supports than did male students, while male students tended to use 'dominating' way of conflict resolution than did females.